

오륙도 칼럼



공기 화

아침 산책 길에 가끔 '보리밭'을 부르면서 'UN기념공원의 정문'을 보며 지나칠 때에 그것들이 남구와 관련이 있다는 생각을 전혀 못했다. 내가 알고 있는 상식은 보리밭과 같은 서정적인 노래가 윤희문 씨가 작곡한 것이고, 묘지의 정문은 유명한 건축가의 작품이라는 정도에 불과하였다.

부산상선의 유명한 모 무대연출가는 개화기 이전까지 부산에 스토리텔링 할 만한 것이 별로 없다고

단언하였다. 부산이 속한 동래지역이 어찌다가 후삼국시대에는 후백제 땅이었기 때문에 고려조에서 팔시를 받은 땅이었음은 틀림없으나, 너무 부산의 역사를 비하하는 것 같다.

남구 지역은 거칠산국에 속한 곳 이었고, 고려 때에는 역사 속에 기술된 남구지역인 생천향(生川鄕)인 못골과 형변부곡(兄邊部曲)인 용단동에서 농산물과 수산물을 각각 생산했던 곳이었으니, 별로 내세울 것이 없는 고장이었다.

중학교 시절에 "집이 어디에 있느냐?"고 물으면 "못골"이라고 했더니, 어른들이 "아하! 못골 촌놈"이라고 했다. 1960년대 초반 하더라도, 부산 사람들에게조차 남구라면 변두리로 바다와 눈발이 있는 농어촌 지역이라고 인식되었기 때문이었다. 이곳은 먹고 살기 바쁜 곳으로 문화, 예술이 척박해 역사

감만동에 고우영 기념비 세우자

적으로 유명 학자, 명문장가와 예술인을 배출한 적도 없었고, 유적지는 존재하지도 않았다.

남구의 역사에 큰 획을 그은 것이 있다면 해방 전후이다. 일제는 남구의 해안지역 일대에 잠수함 기지, 병참창고, 부두, 검역소, 군인 사택 등 군사기지를 만들어 첩통과 같이 지킨 곳이었고, 6.25한국전쟁 시에는 피난민들이 몰려왔던 곳이었으며, 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남구지역 해안에 개인이 매립허가를 받아 재산 늘이었던 지역이었다.

그 결과 남구의 자랑거리였던 부경대학 앞바다에서 용호동까지의 모래톱, 설자리, 용담, 솔개와 모래구찌 해수욕장의 고운 모래사장, 백운포의 희귀한 구갑석(龜甲石) 등 자연유산이 매립되어 공장이나 아파트가 들어 서 였으니 문화를 운운하기에 부끄러운 곳이다. 자연

은 그렇다고 하자, 학교가 몇이 있어 겨우 문맹을 만만 이 지역에는 새로운 문화, 예술의 흔적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은 그냥 간파했거나 관심조차 두지 않았다.

이들은 어려운 역사의 시련 속에서 농사를 짓고 고기를 잡으며 그저 하루하루 살기에 급급하여 고상한 것을 즐길 여유조차 없었다. 그래서 가지 있는 삶을 추구하는 문화, 예술의 흔적이 별로 없어 고향을 물으면 말하기가 겹쳐졌다.

그러나 알려지지 않은 숨겨진 남구의 위대한 역사가 분명 있었다. 어떤 것은 파헤치기에 세월이 너무 흐른 것도 있었지만, 남구지역이 끊임없이 자랑스러운 향토사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이 다행스럽다.

남구의 비밀이 하나씩 벗겨지면서 용호동 백운포 기슭에서 신석기와 청동기의 유물이 나온 패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어려운 시절에 남구를 빛낸 많은 문화, 예술인들이 있는데, 그들 중에 작곡가 윤희문, 소설가인 이주홍, 시인이형기, 미술가 이종섭, 건축가 김준영, 만화가 겸 화백인 고우영, 사진작가 최민식 씨 등이다. 그들은 우리나라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문화, 예술인으로 지난 중대 또는 대학교수들로 여러 가지 사연으로 이곳에서 작품을 남겼던 분들이다.

인생은 유한하나, 심오한 혼을 가진 작품은 영원하여 세인들과 교감하게 된다. 그들은 위대한 작품을 남구 지역에서 만들었던 것이다. 그들은 창작의 세계를 펼쳐 정신적 가치를 더 높였고, 확실적인 일상에서 다양한 삶으로 나아가게 하였다.

이들이 있었기에 문화, 예술에 관한 무지의 잠에서 깨어날 수 있었고, 무료하고 답답한 공간을 심미의 세계로 이끌어 줬다. 어릴 때에 가난하고 별 볼일 없는 고향이나 부모를 남에게 알리고 싶지 않았는데, 그들을 잘 몰랐기 때문에

초라하게 보였을 뿐이다. 그들에서 숨겨져 있는 보석과 같은 아름다움을 찾았을 때 자랑스러운 것처럼 남구의 위대한 문화, 예술인들을 알려야 할 때가 되었다.

아직도 찾아야 할 많은 애국지사 와 위대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 끊임없이 남구의 숨겨져 있는 문화·예술인들의 업적을 발굴하여야 한다. 지금 대학의 교정에 향파문학비, 이형기 사비 등이 남아 있으나, 그들에서 찾은 문화의 흔적을 하나하나 복원하여 후대를 위하여 남기는 작업을 시작했으면 한다. 예를 들어 문헌동에는 '이중섭의 문헌동 풍경'의 거리가 조성되고, 감만동에 고우영의 기념비가, 우암동에는 '윤희문의 '보리밭노래비'가 세워지고, 최민식 씨의 집이 기념관으로 꾸며졌으면 한다.

그리고 부산시민이 남구에서 활동한 이들의 문화, 예술의 흔적을 따라 나서는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한다. 또 더 많은 문화, 예술인의 흔적을 발굴하고 몰래 몰래 더듬어 가고 싶다.

부산교육대학교 명예교수·수필가

신선대

<208>

채 규홍



선웅의

1000자 지혜

108

자식이라도

우리를 관계에서 신뢰만큼 중요한 것은 없음을 것이다.

크고 작은 일 어느 하나 신뢰가 바탕이 되지 않는 것이 없다. 서로 믿고 의지할 수 없으면 전진과 발전은 물론 화합과 희망도 있을 수 없고 불신만 자라게 될 것이며 그 불신 속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 것도 없음을 것이다.

외에 속에 일어나는 것은 파멸 뿐이다. 불신의 꿈을 배우고 서로 믿고 의지하며 묵묵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신뢰는 없을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신뢰도 조건이 있다고 한다.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자신을 주어야 한다고 말한다. 모두 너무 영악해서 일까?

하루는 혜자(惠子)라는 사람이 친구에게 물었다.

"자네, 활의 명수인 예(羿)를 알고 있나?"

"1백 보 떨어져 있는 작은 버드나무잎도 백발백중 명중시킨다는 신공 아닌가. 그런데 그게 어쨌단 말인가?"

"그렇다면 문졌는데, 그 예가 화살을 쏘려고 할 때 자네가 그 과녁을 쥐고 서있을 수 있겠나?"

"그야, 물론이지. 그런 활의 명수라면 안심하고 과녁을 들어 줄 수 있지."

"그의 솜씨를 믿고 의지할 수 있다는 말이군. 그런데 듣자니 자네 아이도 요즘 활을 배우고 있다고 하더군?"

친구가 그렇다고 하자, 혜자가 다시 물었다.

"만약 자네 아이가 활을 쏘려고 할 때, 자네가 그 과녁을 들어 줄 수 있겠나?"

친구는 고개를 내저었다.

"당치도 않은 말이야. 위험해서 못해. 아직 그 아이의 실력을 믿을 수 없어."

"자네 마음을 알 수 없네. 남은 믿으면서 자기 아들은 믿지 못하겠나니."

"다른 일은 모르겠지만 그건, 목숨이 달려있는 문제가 아닌가?"

예와 같은 신공에게는 전혀 남일지라도 상대가 자기를 죽인다는 의심을 하지 않지만, 솜씨가 서툰 사람일 때는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에게 죽음을 당할지 모른다는 의심을 모두가 갖게 되기 마련이다.

이것은 혜자가 모르고 묻은 것이 아니다. 그리고 비록 친구에게 물어보았지만 그것은 친구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묻는 문제가 아닐까.

번역문화가

독자의 소리

독자의 소리란은 독자 여러분에게 활짝 열린 공간입니다. 주위의 시정사항이나 미담사실을 보내주시면 채택된 원고에 대해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부산남구신문편집실 ☎ 607-4075, FAX 607-4374, bns4075@korea.kr

예비군훈련장 시민공원으로

대원4동 산기슭에는 예비군 훈련장이 있었다. 지금은 이전하고 간공터에 인근 주민들이 밭을 만들어 경작하고 있다.

그곳에 오르면, 맑은 공기와 넓은 부산항의 아름다운 전경이 눈앞에 펼쳐진다.

가벼운 등산코스라든가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코스인데, 철조망으로 경계를 하고 체소를 심어서 밭으로 만들어 놔, 양으로 들 어갈 수도 없게 되어있다.

지자체에서 앞으로 어떤 용도로 사용계획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곳을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민공원으로 만들면 어떨

까 한다.

큰길에서 그리 멀지 않아 접근하기가 쉬운데다, 공기가 맑고 전망이 뛰어나기 때문에, 시민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공원 같은 것을 만들면, 주민들의 건강생활에도 큰 향상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남구의 명소로 이름을 날리면 우리 남구의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김명호(대원3동)

등산로 청결유지

문헌 안동네에서 전포 고갯길 정상쯤 황령산으로 오를 수 있는 등산로 길이 있다. 조금 오르다보면 문헌 배수지가 있고 그 배수지 입구가 지는 콘크리트 도로가 있다.

김명호(대원3동)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안전표지판 설치 예정

인라인 트랙 안전표지판을 설치하는 이기대인라인동호회 박동준씨의 의견에 답변드립니다.

백운포체육공원은 2001년부터 공공근로사업으로 시작하여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조성된 체육공원으로 인조축구장, 풋살구장, 테니스장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춘 종합

스포츠타운입니다. 귀하께서도 잘 알고계시겠지만 인라인스케이트장은 2010년 12월 1차 추가조성 때 준공된 시설이며, 예산 부족에 따른 헬스 등이 설치되지 않아 공공근로인력을 투입하여 헬스 등을 추가 설치하여 쾌적한 체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안전수칙 알림

■ 초 등 부 시 부 문 장 원

분수대

물방울이 한 줄로 흐르르르 오르더니 쉼없이 소리내며 뿜뿜처럼 놀랍니다

방울을 터뜨리며 하늘을 오르더니 봄 나비가 되어 사방으로 날아간다

구경하던 아이들이 시원하게 뛰어놀면 내 마음에도 봄이 온다

■ 오 른 도 백 일 장 입 상 자 명 단

■초등부(문문) ▲장원: 장누리(대천초·4) ▲차상: 이정윤(대천초·3) ▲차하: 이지예(동향초·3) ▲입선: 이형찬(용호초·5) ▲장려: 전서연(선평초·3) 김무열(문현초·4) 김민재(해원초·2) ■초등부(산문) ▲장원: 황성하(문현초·6) ▲차상: 오연민(대남초·6) ▲차하: 장윤서(용문초·3) ▲입선: 박은진(문현초·5) ▲장려: 전희진(대남초·4) 김민아(대남초·6) 박수진(문현초·6) ■중등부(문문) ▲장원: 김가영(석포여중·1) ▲차상: 남소원(오륙도중·1) ▲차하: 고나연(석포여중·2) ▲입선: 김재선(동향중·1) 오정주(거제여중·1) ■중등부(산문) ▲장원: 김태연(문현여중·2) ▲차

상: 조현진(대천중·1) ▲차하: 김현정(석포여중·1) ▲입선: 박경나(용호중·1) 이은혜(해원중·2) ■고등부(문문) ▲장원: 이예림(예문여고·3) ▲차상: 정유진(예문여고·2) ▲차하: 양희정(문현여고·2) ▲입선: 이도경(경남여고·2) 손민준(대천고·1) ■고등부(산문) ▲장원: 김지현(예문여고·2) ▲차상: 박정윤(문현여고·2) ▲차하: 전유진(예문여고·1) ▲입선: 신수연(문현여고·1) 임승현(동천고·1) ■대학·일반부(문문) ▲장원: 최인숙 ▲차상: 오현조 ▲차하: 김연매 ■대학·일반부(산문) ▲장원: 허정심 ▲차상: 조용진 ▲차하: 민나진 <심사·남구문인회>



장누리

(대천초·4)

2013 남구오륙도 백일장 입상작 발표

■ 고 등 부 수 필 부 문 장 원

스승의 은혜



김지현(예문여고·2)

나에게 스승이란 든든한 버팀목인 동시에 사랑의 매 같은 존재였다.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고 내가 잘못된 길로 가면 나를 다시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주신다. 그러나 요즘처럼 스승의 그림자도 밝지 않아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예전에는 제자들이 스승의 그림자도 밝지 않았다고 한다. 그에 비해 요즘 학생들은 교사에게 반항과 욕설은

제17회 오륙도축제 기간 중인 지난 5일 평화공원에서는 2013 남구오륙도 백일장이 열렸다. 남구문인회 주관으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어린이 날을 맞아 모처럼 가족 나들이에 나선 사람들로 성황을 이뤘다. 다음은 백일장에서 장원에 당선된 대표 작품과 입상자를 소개한다.

시작한다. 밤늦게까지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남아서 공부하는 우리가 참지는 않을까? 아프지는 않을까? 걱정하며 지켜봐 주시는 선생님.

항상 피곤하지만 웃음을 잃지 않고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선생님. 우리들의 든든한 지팡이 역할을 묵묵히 해주시는 스승의 은혜를 특히 5월에는 더욱더 감사하며 이번 스승의 날에는 아무 말 없이 선생님을 꼭 안아 드리고 싶다. 이제 2년 뒤면 졸업이러서 선생님이라는 말을 쓸 일이 많이 남지는 않았다. 지금까지 10년이 넘게 거의 매일 스승의 사랑 안에서 바르게 살았고 그런 스승의 가르침을 절대 잊지 않고 나머지 삶을 살아갈 것이다. 나를 이끌어 주셨던 모든 선생님을 기억하고 존경하며 나에게 지식 뿐만 아니라 인성적으로 어른이 되게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한 마음을 평생 잊지 않을 것이다. 아 니 아마 못 잊을 것 같다.

다시 한번 스승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번 스승의 날에는 꼭 선생님께 말씀 드리고 싶다. "선생님, 사랑해요!!!"

■ 나의 생각

얼굴이 퍼져야 인생이 퍼진다



조상영

요즘은 많은 분들의 관심이 건강이다.

한대를 살아가며 점점 더 웃을 일은 없어지고 삭막해져 간다는 느낌을 많이 받는다고들 한다. 왜 그럴까? 어느새 우리는 행복이 어디에 존재하는지조차 모르고 그저 그렇게 살고 있다. 오늘부터 한번 웃으며 살아보자. 웃음이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답이 될 것이다.

사람의 뇌는 좋아서 웃는 것이지 또 억지로 그냥 웃는 것인지를 구별하지 못한다. 그래서 일부러라도 웃어주면 우리의 뇌는 '아! 이 사람이 무슨 좋은 일이 있구나.'하고 생각한다.

웃음은 분명 이 시대 최고의 명약이고 신이 내려준 아름다운 선물임에 틀림없다. 부작용이 전혀 없는 참 좋은 치료제인 것이다. 또, 웃음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엔돌핀의 출현 뿐만 아니라, NK세포라는 강력한 물질이 생성되어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지켜준다. NK세포는 암세포를 죽이는 역할을 하며 우리 몸의 나쁜 세포들을 처리해주는 특별한 활동을 담당한다. 그래서, NK세포를 경찰세포, 늑개 세포라고 흔히들 말한다.

1주일이면 세 곳에서 암을 투병 중인 환자분들을 위해 강의를 한다. 너무나 열심히 웃고 또 잘 따라 해줘서 정말 많은 효과를 특별히 보고 있는 분들이 수없이 많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더 강동이 있고 뿌듯함을 느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 아닌가 싶다.

토스트에 바르는 잼. 왜 바르는 것인가? 이유는 다른 것이 특별히 없다. 빵이 맛나기 위해서이다. 바로 인생에 있어 잼 역할을 하는 것이 웃음이다. 웃어야 인생이 즐겁고 행복하다. '웃을 일이 있어 웃지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너무나 틀린 생각이다. 웃다보면 분명 웃을 일이 생겨난다.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고 웃다보면 행복해진다는 것이다.'

그래서 웃음의 양과 행복의 양은 비례한다.

많이 웃기 힘들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조금씩 연습을 해볼 것을 권한다.

웃음도 분명히 연습이다. 꾸준히 연습해서 내 몸에 습관을 들인다면 어렵지 않을 것이다. 얼굴에는 8개의 근육이 있다. 그 중 웃을 때 15개가 움직인다. 웃음을 연습한다는 것이 바로 15개의 근육을 연습시키는 것이다. 꾸준히 연습을 하다보면 어느새 내 얼굴도 웃는 얼굴로 변해 있을 것이다. 이 말을 명심하고 따라 해보며 웃어서 건강과 행복을 모든 분들이 함께 하길 바란다.

'낙하산과 얼굴은 퍼져야 산다.' '얼굴이 퍼져야 인생이 퍼진다.'

기자·조상영웃음연구소장

부산남구신문

1996년 1월 1일 창간

발행처 부산광역시 남구 / 편집인 朴景鎬 / 편집주간 河仁相

부산광역시 남구 못골로 19(대천동)
남구청 대표전화(051)637-7373 편집실(051)607-4065, 4075 / FAX(051)607-4374

부산광역시 남구 홈페이지 : <http://www.bsnamgu.go.kr>

인쇄처 부산일보사 / 월간 <비밀매물>

본지는 신문윤리강령과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